

국 어

해설위원 : 이 현 나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분석표

지식형	8문항	문법	6문항	규범 3문항	맞춤법에 맞는 표기
				어법에 맞는 표기	
				띄어쓰기	
		이론 3문항	보조 용언 찾기		
			합성어 판단하기		
			조사의 쓰임		
어휘	2문항	사자성어의 적절한 쓰임			
		의미 관계 판단			
분석형 (수능형)	12문항	문학	4문항	현대시-1940년대: 이육사, 그리움	
				시조- 조선시대: 조식, 삼동애~	
				수필-고려시대: 이곡, 차마설	
				수필-창작 지문	
		비문학	6문항	독자의 반응	
				내용 일치·파악 x2	
				논지 전개 방식	
				순서 배열하기	
				핵심 파악하기	
		작문	2문항	자료 활용하기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문 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1. 문법 - 맞춤법

정답 ①

해설 서술어의 기본형이 '쳐주다(치다+주다>치어주다>쳐주다)'이므로 '쳐주마'로 써야 옳다.

오답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 쳐지다[동사]

1.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
예) 빨랫줄이 아래로 쳐져 있다.
2. 감정 혹은 기분 따위가 바닥으로 잠겨 가라앉다.
예) 자꾸 기분이 쳐져서 생활이 힘들다.
3. 문드러져 떨어지다.
예) 옷이 쳐지다
4. 뒤에 남게 되거나 뒤로 떨어지다.
예) 수업에 자꾸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쳐지게 되니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5. 장기에서, 궁이 면줄로 내려가다.
예) 궁이 아래에 쳐져 있는 경우에는 포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다른 것보다 못하다.
예) 그들 부부는 어느 면에서 보나 아내보다 남편이 쳐진다.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 쳐대다[동사]
「...을」 함부로 불에 대어서 살라 버리다. [비슷한 말] 쳐지르다.

참고, 쳐대다²

1. 함부로 자꾸 대 주다.
예) 가망 없는 사업에 그렇게 돈을 쳐대기만 하면 어떡하니?
2. 마구 대다.
예) 그는 화가 났는지 벽에다 못을 팡팡 쳐댔다.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1. '쳐박다(1. 매우 세게 박다)'의 피동사.
2. '쳐박다(2. 함부로 막 박다)'의 피동사.
3. '쳐박다(3. 마구 쏘서 넣거나 폭 밀어 넣다)'의 피동사.

문 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2. 문법 - 보조 용언 파악하기

정답 ④

해설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분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제시된 문장을 나눠 보는 것이다. 둘 다 본용언일 경우엔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④의 예문은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다/보인다'로 나눌 수 있으므로 둘 다 본용언이다.

* 보이다: '보다1(대상을 평가하다)'의 피동사.

예) 오늘따라 그 소녀는 펍 예뻐 보였다. 그는 아직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외모는 40대처럼 보인다.

오답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다 & 창문 너머로 날이 온다 : 불가능 > '오다'는 보조 용언
② 내 과자를 먹었다 & 내 과자를 버렸다 : 불가능(의미가 달라지므로) > '버리다'는 보조 용언
③ 선배의 편지를 부쳤다 & 선배의 편지를 주었다. : 불가능(의미가 달라지므로) > '주다'는 보조 용언

문 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3. 어휘 - 어휘의 의미 관계

정답 ②

해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나 '사고(생각하고 궁리함.)'와 '비판(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은 반의 관계가 아니다. 제시된 문맥에서는 특별한 어휘 관계(반의, 유의, 상·하위 등)가 보이지 않는다.

오답 ① 분분(紛紛):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합치(合致):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함.
③ 겸손(謙遜):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오만(傲慢):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④ 결미(結尾): 글이나 문서 따위의 끝 부분.
모두(冒頭): 말이나 글의 첫머리.

문 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睞)하다가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로이다.

4. 어휘 - 사자성어

정답 ④

해설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이르는 것으로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로이다.'와 같이 쓴다.

오답 ① 좌고우면(左顧右睞):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1. 물건 따위를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음. 2. 어림으로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아내려 함. 3.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문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 베풀 입고 암혈(巖穴)에 ㉡ 눈비 맞아
구름 낀 별뿔도 켜 적이 없건마는
㉢ 서산에 해 지다 하니 ㉣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② ㉡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③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④ ㉣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5. 문학 - 시조의 이해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작품은 조식이 쓴 시조이다. 우선 조선시대 문학 작품의 상징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해'는 임금을 '햇빛'은 임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작품을 보면 이해가 쉽다. 화자의 상황을 살펴보면, 화자는 한겨울(삼동)에 출계(배운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 맞아) 지내고 있는데 이는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름 낀 별뿔도 켜 적이 없다'는 것은 임금의 은혜(햇빛)를 약하게라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가 진다고 하니 화자는 눈물을 흘린다. 여기서 '해'는 임금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해가 진다는 것은 임금의 승하를 의미하는 것이다. '서산'은 임금이 계신 곳, '눈물'은 임금의 승하에 따른 슬픔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눈비'는 '배운'과 함께 화자의 힘든 처지를 나타내는 소재이지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 풀이

한겨울에 베풀 지은 옷을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살(임금의 은총)도 켜 적이 있지만 서산에 해가 졌다는(임금께서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나오는구나.

* 핵심정리

제재: 임금의 승하
성격: 유교적
주제: 임금(중종)의 승하에 대한 애도
짜임: 은사(隱士)의 생활-작은 관록도 받지 않음-임금의 승하를 애도함

문 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랑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랑-'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② 면도칼, 서릿발, 권둥이, 장난기
③ 깍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④ 김치찌개, 돌다리, 시나브로, 암탉

6. 문법 - 단어의 형성

정답 ①

해설 합성어의 예시를 찾아야 한다.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등은 모두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된 합성어이다.

* 짓: [명사] 몸을 돌려 움직이는 동작. 주로 좋지 않은 행위나 행동을 이른다. 예) 나쁜 짓

** 감: [명사]

1. 옷이나 이불 따위를 만드는 바탕이 되는 피륙. 주로 옷감의 뜻으로 쓴다.
2. '옷을 만드는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3. 옷감을 세는 단위. 한 감은 치마 한 벌을 둘 수 있는 크기이다.
4.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자격을 갖춘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5.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대상이 되는 도구, 사물, 사람, 재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오답 ②

면도-칼: 명사+명사 = 합성어
서리-발: 명사+접사 = 파생어
* -발[접사]: 1. '기세' 또는 '힘'(말발) 2. '효과'(화장발)
권-둥이: 수사+접사 = 파생어
* 권둥이: [명사] 나이가 권이 넘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 -둥이[접사]: '그런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늑둥이, 귀염둥이)
장난-기: 명사+접사 = 파생어
* -기[접사]: 기운, 느낌, 성분 (소금기, 바람기)

- ③ 깍두기: 단일어
선생-님: 명사+접사 = 파생어
* -님[접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작은-형: 접사+명사 = 파생어 (*작은'을 형용사로 보아 합성어로 보는 견해도 있음)
* 작은-[접사]: '말이가 아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핫-바지: 접사+명사 = 파생어

* 핫바지: [명사] 1. 숨을 두어 지은 바지.
2. 시골 사람 또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핫-[접사]: '숨을 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④ 김치-찌개: 명사+명사 = 합성어
돌-다리: 명사+명사 = 합성어
시나브로: 단일어
* 시나브로: [부사]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암-닭: 접사+명사 = 파생어
* 암-: [접사]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문 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7. 비문학 - 핵심 파악

정답 ①

해설 첫 문장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세상(불확실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문 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중복 응답)

인터넷의 순기능	88.4	59.0	46.6	13.1	12.9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터넷의 역기능	84.3	83.9	56.2	16.1	10.2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8. 작문 - 자료의 활용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에서는 '잘못된 여론 형성'과 직접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인터넷의 역기능 중 '허위 사실 유포'가 간접 연관이 있기는 하겠으나 이를 가지고 인터넷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는 없다.

오답 ①

- ① 순기능 첫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역기능 세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역기능 네 번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9. 문학 - 현대시의 이해

정답 ④

해설 '잠을 깨었다'는 것에서 '그리움'의 심리를 연관 지을 수 있으나, '잠'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고, 화자의 절망과도 연관이 없다.

- 오답
- ① <보기>와 연관 지으면 '북쪽'을 고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보기>와 연관 지으면 '너'를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잉크병 얼어드는 밤'이므로 극심한 추위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함을 알 수 있다.

* 해설

화자는 자신의 고향에 눈이 오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보았던 눈이 내리던 광경을 형상화하면서 화자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선명한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눈'은 시련이나 역경의 이미지로 사용되지만 이 시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매개체로서, 포근함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1945년 겨울에 창작되고 네 번째 시집 {이용악집}에 수록된 이 시는 이용악의 시에서는 보기 드문 연가풍의 작품이다. 1939년 이용악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최재서가 주관하던 {인문평론}의 편집 기자로 근무하다가 1942년 고향 경성(京城)에 돌아간 중, 1945년 해방되자마자 귀경(歸京)하여 그 이듬해 '조선문학가동맹'에 가담하게 된다. 이 시는, 해방 직후 혼자 상경하여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던 그가 무산(茂山)의 처가에 두고 온 그의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5연으로 이루어진 자유시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기.승.전.결의 전형적 형식에 수미 상관의 구조를 결들인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1연[기]에서 시인은 '북쪽 작은 마을'에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하고 자신에게 묻고 있으며, 2~3연[승]에서는 어느덧 시인이 상상의 날개를 펴고 북쪽의 가족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 곳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 백무선 철길'을 이용해 '느릿느릿 밤새워 달려'야 다다르는 깊은 산골이다. 지금쯤이면 그 곳으로 향하는 화물열차의 검은 지붕에도 눈이 내릴 것이며, 가족들이 사는 작은 마을에도 눈이 내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4연[전]에서 화자는 그들이 못 견디게 그리워진다. 그러므로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시행의 '차마'라는 시어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응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 어찌자고 잠을 깨어'라는 구절은 바로 시인이 머물고 있는 서울도 잉크병마저 얼게 할 정도로 추운데, 그곳 무산의 가족들은 얼마나 추울까, 하는 화자의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잘 드러나 있다.

문 1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 '성공: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게,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 '책:장난감 블록'
- ③ 로맹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맹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 '돌: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 '내면:옷차림'

10. 문학 - 소재의 관계 파악

정답 ④

해설 제시된 글에서 '액자'는 작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그림'의 단점을 보완하여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④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옷차림'은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오답

- ① '습관'은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 ②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쌓음으로써 책을 재발견할 수 있다.
- ③ '손'은 '돌' 안에 숨어 있는 가치, 가능성이다.

문 1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11. 문법 - 맞춤법

정답 ③

해설 '연예인을 본' 것은 과거의 일이므로 '-던'과 '-든' 중에 '-던'이 옳게 쓰였다.
* -던[어미] :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더냐'보다 더 친근하게 쓰는 말이다.

오답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간대요?
: 문맥상 밑줄 친 부분은 '간다고 해요'가 줄어든 것이므로 '간대요'라고 적어야 한다.
참고로, 전해들은 말 '-다고 해'의 준말은 '-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더라'의 준말은 '-데'이다.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데. > 잘하데
: 문맥상 밑줄 친 부분은 '잘하더라'가 줄어든 것이므로 '잘하데'라고 적어야 한다.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 크대요.
: 문맥상 밑줄 친 부분은 '크더라'가 줄어든 것이므로 '크대요'라고 적어야 한다.

문 1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12. 문법 - 띄어쓰기

정답 ③

해설 '대로'는 체언 뒤에서는 조사이므로 붙이고,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는다. '내키는'은 관형어이므로 '내키는'대로'로 적어야 한다. '안 되다'는 '되다'의 부정형일 때는 두 단어이므로 띄어 적지만, '잘되다'의 부정형일 때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적는다. 제시된 문맥에서는 '되다'의 부정형이므로 '안~되다'로 띄는 게 맞다.

* 참고: 안되다[안되다/안됐다] [동사]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오답 ① 여러~가지: 두 단어이므로 띄어 적는다.
도외시하다: 한 단어이므로 붙여 적는다.

* 도외시하다 (度外視--)[도:외시하다/도:웨시하다] [동사]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

② 여자~대~남자: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은 띄어 적는다.

* [한글맞춤법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국장 겸 과장 열 내지 스물 청군 대 백군 책상, 결상 등이 있다

이사장 및 이사들 사과, 배, 귤 등등 사과, 배 등속

대리전으로밖에는: '으로, 밖에, 는'이 모두 조사이므로 다 붙여 적어야 한다.

* 밖에: 체언 뒤에서는 조사이므로 붙이고, outside의 의미일 때는 명사(밖)와 조사(에)의 결합이다.

④ 한~만큼: '만큼'은 체언 뒤에서는 조사이므로 붙이고, 관형어 뒤에서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는다.

회복될지: '지'는 기간을 의미할 때만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적고 그 외에는 모두 붙여 적는다.

문 1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13. 문법 - 조사의 쓰임

정답 ②

해설 '신청자'는 유정명사이므로 '에게'를 쓴다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서술어 '한하다'가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에 따라 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술어 '한하다'는 '~에 한하다'의 꼴로 쓰이므로 '신청자에 한하여'라고 해야 한다.

- 오답 ① 에서: 1.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2.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3.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예: 1.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2.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3.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④ 도: 1.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2. 둘 이상의 대상이나 사태를 똑같이 아우름을 나타내는 보조사.
3. 양보하여도 마찬가지로 허용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문 1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 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14. 비문학 - 핵심 파악

정답 ②

해설 비판적 사고는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다. 즉, 지문은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핵심인 것처럼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것은 '본말전도(本末顛倒): ① 일이 처음과 나중에 뒤바뀜 ②일의 근본(根本) 줄기는 잊고 사소(些少)한 부분(部分)에만 사로잡힘'이다.

- 오답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대학>>에 나오는 말이다.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갑자기 깨닫고(돈오), 그 깨달음을 차례와 위계를 거쳐 수행하고 득도함.(점수)

문 1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ㄴ-ㄷ-ㄹ
- ② ㄴ-ㄱ-ㄷ-ㄹ
- ③ ㄷ-ㄹ-ㄱ-ㄴ
- ④ ㄹ-ㄷ-ㄴ-ㄱ

15. 비문학 - 순서 배열하기

정답 ③

해설 순서는 지시어, 접속어, 화제어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제시된 것 중에 지시어나 접속어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ㄷ이므로 이를 처음으로 삼아야 한다. ㄷ 다음에는 태양빛 외의 빛을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ㄹ이 와야 하고 ㄹ다음에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인류의 문명이 발달될 수 있었다는 ㄱ이 오는 게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인위적인 빛을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생긴 문제점을 언급하는 ㄴ으로 마무리되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문 1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6. 작문 -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조건에 맞게 표현한 것을 찾아야 한다. 제시된 조건은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이 반영된 내용을 '등산에 빗대는 것' 두 가지다. ③은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에서 첫째 조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에서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다.

- 오답 ① 잘못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② 잘못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리더십이 빛나는 사례이다.
④ 리더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조건에 맞지 않는다.

문 1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는 사물(四物), 즉 쥘리, 징, 장구, 북의 네 가지 타악기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와는 좀 다르다. 풍물놀이를 무대 공연에 맞게 변형한 것이 사물놀이인데, 풍물놀이가 대체로 자기 지역의 가락만을 연주하는 데 비해 사물놀이는 거의 전 지역의 가락을 모아 재구성해서 연주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쥘리거리는 쥘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짚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동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① 사물놀이의 가치
- ② 사물놀이의 소리
- ③ 사물놀이의 악기 종류
- ④ 사물놀이의 연주 형태

17. 비문학 - 내용 파악

정답 ①

해설 사물놀이의 가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 오답 ② 사물놀이의 소리는 2단락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악기의 종류는 1단락의 첫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연주 형태는 2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18.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글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라면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담화에서 화자는 발화를 통해 ‘명령’, ‘요청’, ‘질문’, ‘제안’, ‘약속’, ‘경고’, ‘축하’, ‘위로’, ‘협박’, ‘칭찬’, ‘비난’ 등의 의도를 전달한다. 이때 화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직접 발화, 암시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된 발화를 간접 발화라고 한다.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아, 답다.’라는 발화가 ‘창문을 열어라.’라는 의미로 파악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방 안이 시원하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청자는 창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간접 발화를 전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 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 ① 발화는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이다.
- ② 간접 발화의 의미는 언어 사용 맥락에 기대어 파악된다.
- ③ 간접 발화가 직접 발화보다 화자의 의도를 더 잘 전달한다.
- ④ 요청할 때 청유문이나 의문문을 사용하면 더 공손해 보이기도 한다.

18. 비문학 - 내용 일치

정답 ③

해설 직접 발화와 간접 발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둘 중 어느 것이 더 의도를 잘 전달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 오답** ① 1문단 첫 문장: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발화이다.
 ② 2문단 첫 문장: 일상 대화에서도 간접 발화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여 파악된다.
 ④ 3문단 첫 문장: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문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19. 문학 - 수필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③

해설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비교의 방식인데, 윗글에서는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① 말을 빌린 경험과 거기서 느낀 점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② 말을 빌린 경험에 빗대어 소유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우의(寓意: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적 기법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④ 말을 빌린 일상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주장(소유의 본질)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문 2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20. 비문학 -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지문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 즉, ‘진리가 이러하듯이 정의도 이러해야 한다’는 유추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에서도 ‘인생은 여행과 같다’는 유추적 전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 오답** ① 3단 논법: [대전제]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전제]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론]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
 ② 대조, 예시: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과 그 사례
 ③ 귀납: [사례1] 우리 강아지는 ~ 기분이 좋아진다. [사례2] 친구 강아지도 그렇다. [결론] 모든 강아지가 그렇다.